

경남일보

기사 검색

≡ | 뉴스 경제 스포츠 기획/특집 라이프 교육 오피니언 포토/영상 독자위원회

HOME > 문화 > 문화종합

영호남 불자들 삼보사찰서 '코로나19 극복' 기원

✎ 이은수 | 🕒 승인 2021.10.06 19:44 | 💬 댓글 0



송광사 괘불재를 시작으로 해인사, 통도사 거쳐 남도 천리길 순례 영호남 15개 들차회 행사 뒷받침

국내 불교를 대표하는 삼보사찰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천 봉명대 원 등 영호남 15개 들차회가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괘불재 및 천리길 순례를 가졌다.

특히 송광사(주지 자공) 괘불은 60년만에 선보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괘불은 길이 1060cm, 폭 633m, 화폭은 세로 991cm, 가로 539.5cm의 대형크기로 먼 바탕에 채색돼 눈길을 끌었다. 1부 괘불재에 이어 김영옥 선생 연출로 산사 음악회도 열려 가을의 좋은 기운을 만끽하는 자리가 됐다.

송광사(승보 사찰)를 시작으로 해인사(법보 사찰)를 거쳐 통도사(불보 사찰)에서 남도 천리길 순례를 하고 회향 했는데, 이 기간 전국의 재가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송광사 금강사산림대법회 등을 열면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기원했다. 송광사 방장 현봉스님은 “송광사 괘불재를 60년만에 대웅보전 앞에서 개최하게 돼 감개 무량하다”며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시절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육법공양을 비롯한 헌다회(다례제)가 성황리에 진행돼 사천 다솔제다의 발효녹차 영양밥, 봉명대원 황금차가 깊은 맛과 여운으로 입맛을 사로 잡았다. 김정순 티월드 대표는 “녹차는 살균 및 해독작용을 돕는데, 녹차 영양밥은 식감이 좋으며 아침 대용으로 제격이다.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개발품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중공양을 한 김선미(다솔제다) 원장은 “뜻깊은 행사에 참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불자들의 염원처럼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가고, 차 한잔의 여유를 찾는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ews.co.kr

최신기사

- [기념사] 고영진 대표이사 회장 '경남일보 창간호는 문화재다'



- 경상국립대 15일 '국가균형발전 심포지엄'

- 우포따오기 가을하늘 날았다



- '거제도 포로의 일상' 공동기획展



- '동남권 메가시티' 국가전략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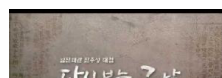


- 차기 경남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 새 국면 맞다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경남 유치 추진



- '진주성 전투' 유튜브 콘텐츠로 재탄생



SNS

뉴스를



라이프 & 여행

지리산단풍 이별



- [박재현의 숲이치]
- '다이너믹 가을' 열
- 밀양 재약산 역사



피플 & 인터뷰

이치우 창원시의



- 김점근 함안 가이
- 진주시민상에 정
- 한계를 뛰어 넘은

알립니다

- 2021 시민과 함께
- 2021 사천노들미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지난 9월 30일 송광사에서 60년만에 괘불제가 열렸다. 사진은 한다희 모습.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괘불제가 60년만에 송광사에서 열린 가운데 지난 4일 천리길 순례에 이어 회향식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수**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창원시, 덕동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근거 마련

지리산단풍 이달 넷째주 절정 예상



경상국립대, 문 개방하고 시민에게 다가간다



경남교육청, 2022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 공고

그린스마트사업 앞둔 경남교육청, 안전대책 골몰

"허망한 죽음, 다시 없도록"...남해고속도로 바뀐다



댓글입력

✓ 최신순 추천순

무조건 최저가 나로 인기폭주!

나로 가을
한정수량!



[회사소개](#)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문의](#) [불편/오류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경남일보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최창민 | 고충처리인 : 박철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POWERED BY **NE'**